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구주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약해지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기도는 20일(월) 0시부터 24일(금) 24시까지 단축 변경합니다. 이 기간에 교육관 예배실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고, 성탄절 전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음 주일(19일) 예배 후에 역할공동체별로 모여 각 실행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이어서 선출된 임원들이 모여 공동체운영위원회를 조직합니다.
- 세례와 입교를 준비해 주십시오.
문답교육(18일, 토 오후 3시) 문답(24일, 토 오후4시)
- 이용신장로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김중필집사 어머님께서 어제(토요일) 별세하셨습니다.
빈소: 한림병원 장례식장(인천시 계양구)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48 호

2021년 12월 1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파수꾼이 아침 해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저는 군대에서 GOP 경계병으로 약 1년을 보냈습니다. GOP경계병은 말 그대로 북한과의 경계선인 DMZ 지역에서 누군가 넘어오진 않는가, 혹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감시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서해부터 동해까지 이어져 있는 휴전선 라인은 그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감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각 지정된 초소에서 또는 이동하며 감시를 이어갑니다. 이것을 3개조가 3교대로 매일 실행합니다. 이것이 경계병의 일상입니다.

이 역할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24시간, 누군가는 항상 보고 있어야 하기에 성탄절이나 설날 같은 빨간 날에도 예외 없이 근무를 서야 합니다. 폭설, 번개, 태풍의 자연재해가 몰아쳐도 누군가는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힘든 시기는 뭐니 해도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양구는 10월부터 얼음이 얼고, 5월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훈련병 때 급성폐렴이 걸려서 상당 기간 동안 입원을 했던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하여튼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경계임무 말고도 이것저것 작업도 해야 했으니,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 선임들은 너나할 것 없이 초소에 들어가면 대부분 잠에 푹아떨어졌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했던 특징을 뽑자면,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GOP에 오르기 전에도 산 중턱에 부대가 동떨어져 있어서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 왕복 3시간 거리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없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게다가 부대 담당 목사님은 매우 고령이라, 산을 타고 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GOP생활 내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군종병이 따로 있긴 했지만 그곳에선 별 의미가 없었고, 똑같은 생활을 이어가는 병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엔 내부의 소수의 인원끼리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당연히도 작업, 눈, 얼음, 그 외 작업, 그리고 낮 근무가 없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와중에 틈틈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시간들은 서로에게 감동과 위안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나 모두가 함께 공감한 말씀이 시편 130편 6절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밤-새벽근무를 하다보면 언제 해가 뜨는지 발을 구르며 기다립니다. 힘
선교와 섬김

들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커멓던 하늘이 군청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간절함은 더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간절하다니, 이 시인은 그만큼 주님을 진심으로 바랐었음이 틀림없겠지요. 희미해진 기억 속 어느 겨울날, 이 말씀을 읽었던 병사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없는 곳에 던져져, 신앙을 지탱하던 하루하루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갈망하고, 쫓아가고,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방교회는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최전선에 서왔습니다. 사회의 차가운 물이해 속에서, 한국 교회의 주류와 동떨어진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처음 내딛는 단독적인 걸음들이었기에, 30년이 넘기까지 온갖 경험을 내적으로, 외부적으로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비틀대는 발자국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킴으로서 나타나는 의의도 있습니다. 파수꾼은 성실하게 지키고 서있는 것이 임무이자 본분입니다. 때로는 겨울마냥 위축될 때도 있겠지만, 아침 해를 떠올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무엇을 추구하는지 상기하기 위해 사랑방교회의 교회상(像)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방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사랑방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삶의 감격을 나누는 교회,
성서연구에 힘쓰고 교육적으로 이끌어 가는 교회,
가정을 보호하고 생활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서 경건을 훈련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휴식처로 지도력 훈련으로 봉사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말씀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이다.』

우리의 모습을 이상에 비춰보면 부족해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육신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또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싸늘하게 날이 선 세상에서 그 분을 향한 마음이 충만해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
 <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누가복음 8장 1-25절
 제목 : 어려움 중에 확인하는 믿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20 104 501 361

1-3 예수의 일행을 섬긴 여자들

해석: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돕는다.

적용: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자.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쁘게 헌금과 헌신을 하자.

4-15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뜻

해석: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구원을 위한)을 전하신다. 좋은 땅에서 자란 씨(하나님 말씀)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성화의 삶)을 지켜 열매 맺는다.

적용: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켜 열매 맺자.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 신앙의 열매를 맺자.

16-18 등불 비유

해석: 믿음은 빛처럼 환히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뜻)을 확연히 알게 한다.

적용: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더욱 믿음을 확신하자.

19-21 참 예수의 가족

해석: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족은 육체적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다.

적용: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의 가족이 되자. (신앙의 유익을 위해 서로 믿어주고 의자하자.)

22-25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다.

해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를 두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

적용: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성서일기

감사 릴레이

지난 멋쟁이학교 종강 때 멋쟁이들은 감사 릴레이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은혜가 되고 더욱 감사가 넘쳤습니다. 모든 감사의 내용을 나눌 수 없지만 몇몇 멋쟁이들의 감사내용을 나눕니다.

최지수: 종강 발표회를 대면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지낼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홍인: 하나님, 선생님, 학생회, 1학년, 큰 탈 없이 보낼 수 있게, 이번 힘든 학기에 잘 대처해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 감사 선생님에게는 열심히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학년이 1년을 싸우지 않고 잘 지내서 고맙고, 학생회, 특히 힘든 학기인데, 분위기를 잘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하: 종강 발표회, 행복했던 시간, 안전하게 한 학기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종강 발표회를 대면으로 한 것. 힘든 상황에서도 대면할 수 있는 것.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재원: 일상, 작년에 거의 모든 활동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회복해서 감사. 갈 수 있는 여행은 거의 다 간 것과 멋쟁이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것, 종강 발표회를 통해 한 학기를 의미 있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나영: 종강발표회, 여행 활동, 학년, 엘라 울리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외출과 테마여행과 지리산 종강여행과 같이 여러 활동들을 잘할 수 있어 감사하고, 몇 년 만에 대면으로 종강발표회를 했는데, 잘 마무리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학년 친구들에게는 이번 학기 즐겁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감사. 엘라, 울리안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해주신 선생님들의 노력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희정: 멋쟁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 힘든 날,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멋쟁이 선후배, 친구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 감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수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한 점을 생각하고 서로 나눔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미가서 5 : 2

36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5 : 1

112, 11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교

누가복음 2장 10-14절, 28-32절

104

설교자

사랑방

“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 ” 정재훈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575

455(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전향옥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청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성탄절을 기다리는 복을 베푸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목자들. 늦은 밤 천사들이 전해 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곧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복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맨 처음 영접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랫동안 언약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노인 시므온과 나이 많은 여예언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첫 시작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감격에 찬 목소리로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성육신한 하나님을 영접한 인물들은 고관들도 아니요, 유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분이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나이 많고 기력이 쇠한 노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낮추어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윤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오랜만에 숲을 산책했습니다. 무성하던 풀과 나뭇잎이 없으니 어린 나무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바늘잎 5개가 붙어있으니 잣나무구나 다시 확인을 합니다. 나뭇잎을 다 떨군 나무들에 달린 거울눈도 보고 붉게 물든 풀잎들도 보고 역새를 꺾어 서로 간지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장면이 떠올랐는지 역새를 높이 들고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기도 합니다. 풀이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많이 말라버려서인지 산길 곳곳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꾸러기들이 다음에는 봉지를 가져와 쓰레기를 주워야겠다고 합니다.

장미숙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보랏빛 초를 만들었습니다. 왁스가 녹고 색소를 넣고 색이 변하는 것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데지 않게 조심조심 부어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자기 전에 촛불을 켜고 기도하기로 했으니 다시 꾸러기학교에 오면 꼭 챙겨갈 겁니다.

수요일부터 꾸러기에 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모두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종강을 향하여 가는 길은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감사함은 어디에 비할 바가 없지요.^^

이것저것 마무리 되어야 하는 일들 속에서 어린이 친구들도, 교사들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인하여 온라인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우리는 상황이 어떠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법은 없지요 어린이니까요.

줌으로 얼굴을 보며 발표회의 아웃라인을 다 만들었고 의상까지 다 정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얼굴을 보며 멋진 공연을 펼칠 것입니다. 가족들을 초대하지는 못하지만 멋진 모습으로 잘 자란 모습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걸어온 공동체 식구들과 어린이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는 학기의 마무리 과정으로 종강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2년은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외부로 나가기로 했고, 속초를 무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많은 기대를 품고 떠났지만, 갑작스럽게도 코로나 문제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귀가 이후 코로나 검사에선 누구도 양성이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소 일찍 시작한 방학이 되었지만, 이제는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조율해가며 학부모 면담 일정과 방학숙제가 전해질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잘 감당하고 성장해온 멋쟁이들이 휴식도 거치고, 각자의 특색 있는 경험도 하고,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더 멋져지는 우리 멋쟁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맞이할 내년 또한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 앞에 놓인 2021년 달력을 2022년 달력으로 바꾸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세삼 알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아쉬움도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달력 안에 적혀 있는 일들을 보면서 아주 적은 일들이었지만 그 의미만큼을 더욱 진하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할 수 있었던 멋쟁이들과의 여행과 뮤지컬 관람. 풋살대회와 종강발표회 등 최선을 다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려 노력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함께 하는 외출이 그토록 소중하고 여행은 기억에 더 남고 되새겨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중이었다가 함께 모여 드린 예배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찬양 소리는 정말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귀한 소리였습니다. 예배 후 비록 주먹인사였지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반가움을 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랬었지.. 서로의 얼굴을 보니 다시 한 번 한 몸인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온라인 방모임은 워드 코로나가 되면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정말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마음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도 많지만 감사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도 어려운 때에 이토록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격하게 됩니다.

일상의 원래 있었기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의미를 찾아가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로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으며 그리워하며 사랑하는지 알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202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에베소서 6장 18-20절

인 도 : 권재만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코로나-19의 위력이 약해지고 일상이 회복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동광원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동광원 남원본원에 연로하신 수도자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은혜 가운데 원활하고 순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 동광원과 귀일원이 하나가 되어 길이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좋은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3) 동광원 벽제분원의 이현필기념관과 예배실 마무리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공동체를 위한 기도<공동체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 확진 받으신 분과 가족들을 위해,
(2) 공동체에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3) 서로가 사랑으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날씨가 추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대체로 포근한 중에 지냈습니다. 날씨는 포근했지만, 공동체는 한 주간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바쁜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분 중에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공동체는 이후 한 주간 모든 활동과 모임을 멈추고, 모든 식구들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결과가 확인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모든 구성원들과 학교 학생들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주셔서, 공동체 전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확진 받은 분의 건강이 많이 안정되었고, 어려운 중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루터기로 김영동, 전경희 집사님 가정이 이사 들어오셨습니다. 공동체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한 된 중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생활공동체 김종필 집사님 모친께서 토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의 많은 위로가 유족들의 마음에 전해지시길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